

'곡성형 지역교육사업' 5년간 2만여명 참여 '호응'

학령인구 감소 극복위해 시행

초·중학생 생태·역사 등 교육

지역교육 질적 성장 이끌어

현장 학습과 체험을 통해 고향의 역사·문화·자연을 깨우치는 '곡성형 지역교육사업'이 5년간 초·중학생 총 2만여명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곡성형 지역교육'을 확립하고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업 초기 단계로 기반조성과 저변 확대에 힘썼으며,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통합플랫폼 운영과 마을교육과정 지속 운영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시행 첫 해인 2021년 교육대상자 3609명에서 2022년 4111명, 2023년 3690명, 2024년 4995명, 2025년 4723명으로 총 2만1128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초등 8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생태·예술·목공·역사 교육 등 10종에 걸쳐 총 286회 시행됐다.

재단은 지역의 마을교육 공동체와 협력을 토대로 곡성의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



지난 여름 학교 밖 마을교육의 일환으로 섬진강 생태습지를 견학하는 어린이들.

고, 지역 속에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며, 자신의 빛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초등 교과연계 마을교육과정은 도입 5년 만에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지역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장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마을공동체, 재간, 학

교 간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마을교육과정은 단순한 현장 체험 학습이 아닌,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재단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등 초등학교 교과서 속의 학습 목표를 곡성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곡성의 지원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3학년 사회 교과의 '지역의 지리 및

문화' 단원은 곡성읍과 유적지 일대의 실제 지형과 역사 탐방으로, 4학년 과학 교과의 '생태계' 단원은 섬진강 주변의 생태습지 탐사와 숲 체험으로 연계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사와 지역의 전문 인력인 '마을교육 강사'가 협력하여 학교 교육의 깊이와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초등 교과연계 마을교육과정의 목표는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을 실제 삶 속에서 확장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책 속에서만 보던 개념을 마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며 경험한다. 단순한 현장 견학식 교육이 아니라, 교과의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해·애착·책임감을 자연스럽게 키운다. 마을 교육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통은 사회성·협업 능력·표현력 등 교실 안에서만 채우기 어려운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초등 교과연계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곡성 아이들이 튼튼한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박선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산지서 맛보는 고풍 굴…해창만 굴 축제

다음달 3일 체험·공연 프로그램

고흥군이 내달 3일 포두면 해창만 오토캠핑장 일대에서 '제1회 해창만 고흥 굴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굴 재철인 1월에 고흥 굴을 산지에서 가장 신선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겨울 미식 축제다.

축제의 주제인 '바다의 시간, 고풍의 맛'은 얇은 수심과 편(편)·모래가 섞인 해창만 해역에서 자라 단단하고 달콤한 풍미를 지닌 고흥 굴의 고유성을 담고 있다. 해창만은 영양 순환이 활발해 굴의 밀도와 감칠맛이 겨울철 절정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번 축제는 이러한 특징을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미식·체험·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의 핵심 공간인 미식존 '바다마루'에서는 고풍 항토음식인 피굴을 비롯해 글보쌈·굴국밥·굴전·굴튀김·굴라면 등 10종의 '굴 한 상 차림'을 선보인다. 스페셜존 '굴막포차'에서는 굴구이·굴찜 등 가열 조리 메뉴를 현장에서 즉석 제공해 제철 굴의 풍미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체험존 '바다놀이터'에서 굴스토리 체험, 소원 굴걸이, 어린이 쿠킹클래스, 해물 바람개비 만들기 등을 운영하며, 고풍 굴 마스크트 '꾸풀이' 포토존과 스템프 미션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 방문객의 체험 요소를 확대했다. 마켓존에서는 석화·해산물·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명절 대비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33억원 지급

소농·면적직불금 9924 농가

보성군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9924농가(1만194.8㏊)로 최종 확정하고, 지난 10일 총 233억75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군은 앞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충족 여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금 대상과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4302농가 56억여원, 면적직불금 5622농가 178억여원이다.

소농직불금은 0.5㏊ 이하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단기 가 전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됐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기를 적용하며, 기준 ha당 100~205만원에서 올해 136~215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 돼 벼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삼산동 16번째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취약계층 500여 세대에 전달

순천시 삼산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5일 2025년 '삼산동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

이번 행사는 삼산동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제육회 등 지역 직능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재료들을 버무려 김장 김치를 담가 관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경로당 등 600여 세대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겨울철 안부를 살폈다.

삼산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는 매년 삼산동 직능단체의 협력으로 500~600박스(6kg)의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지속되고 있다. 삼산동 직능단

체 등 봉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며, 주민들도 매년 김장 나눔 행사에 대한 기대와 감사함을 전하며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이감섭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김장김치 나눔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홍미 순천시 삼산동장은 "협력해 주신 직능 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김장 나눔 행사 통해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에도 지역사회에의 지속적인 관심과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충중 기자 ejkim@

광양시보건소

결핵협회 기관상 수상

퇴치사업 추진 성과 인정

광양시보건소가 지역사회 결핵 발생률 감소와 결핵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 8일 호텔현대 바이 리한 목포에서 열린 2025년 결핵관리사업 워크숍에서 '2025년 결핵퇴치사업 유공 대상결핵협회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위험군 결핵 진단 확대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관리 ▲집단시설 결핵 예방 교육 강화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 환자 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결핵관리사업 추진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동 검진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와 지역민 참여형 예방 캠페인, 민간·공공 협력 기반의 결핵관리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정책을 추진해 결핵 발생률 감소와 지역 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감염병 분야에서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결핵 예방 활동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결핵 인식 개선, 조기 발견 및 치료, 환자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인증

701개 농가 소득보전금 지급

여수시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지역 농업 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01개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총 4억 800만원을 지급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확량 감소 등을 고려해 인증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인증단계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제공하는 여수시 자체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 관내에서 1000㎡ 이상을 경작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다. 지원단가는 ha당 유기농은 120~200만원, 무농약은 90~150만원이며 인증단계 및 작물별로 차등 지급된다.

올해 지급된 소득보전금은 유기농 인증 439개 농가 3억5000만원, 무농약 인증 262개 농가 1억 3000만원 등 총 701개 농가 4억8000만원이다.

지급은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인증 내역 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 농가 계좌로 이뤄졌다. 소득보전금 관련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6)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zgm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립하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립점 062) 511-2901~3